

### 영산강 문수선원 "실험대상 아니다"

전남 영산강 승촌보 문수선원(선원장 법선)은 4대강을 지키기 위한 행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문수선원을 운영하는 영산강 살리기 광주전남시민연대(공동대표 임낙평)는 8월 22일 문수선원에서 '문수선원 음악제'를 개최한다. 놀이패 '신명'과 민족극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음악제는 오후 2시 순례에 이어 3시 마당극과 공연의 순으로 진행된다.

28일에는 문수스님추모위원회 주최로 문수스님 산골의식이 봉행된다. 9월 11일에는 '4대강 중단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의 날'로 지정해 4대강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문수선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평화운동가 정의행씨는 "불교계 일각에서 영산강을 실험적으로 해보고 4대강을 재검토 하지는 않겠냐"고 말했다. 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잘못된 수술방법을 가지고 자연을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29일 개최된 문수선원에는 전정배 민주당 국회의원, 원희룡 한나라당 국회의원, 통일선봉대, 비전한반도포럼 등이 다녀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뜨거운 여름 자연과 함께해요"

###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생태학교·익산 송림사, 템플스테이

방학을 맞아 전국에서 어린이 캠프가 한창이다. 전국 사찰과 불교계 단체에서는 도시 어린이들을 위한 생태학교 및 자연체험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을 유혹하고 있다.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는 8월 6-8일까지 안도 신홍사에서 '제4회 어린이 여름생태학교'를 개최했다. 건강한 먹거리와 놀이거리, 그리고 자연을 체험하는 행사에는 60여 어린이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안도 천혜의 자연지 정동리 구계, 청산도, 보길도 등에서 자연생태 바로알기, 손수건 천연염색, 우묵가사리 만들기, 전래놀이, 물놀이, 빈그릇 공부, 건강한 먹거리 강의, 도자기 만들기, 오감체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생태학교에서는 휴대폰, 게임기 없이 지내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다. 또 비누와 치약 등은 환경연대에서 나눠준 친환경제품을 쓰면서 자연을 지키기 위한 체험을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지현우(초등 6년)군은 "밥은 맛있었고, 108배는 운동이 되었다. 물놀이, 춤추는 것,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전북 송림사는 8월 6일-8일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를 개최했다. 어린이들이 할라산 돌멩이를 탐방하고 있다.

아쉽다. 게임이나 핸드폰이 없이도 행복했다"며 참가소감을 말했다.

전북 송림사주지 지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한자교육과 생태체험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6-8일 '자연과 하나되는 여름불교학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템플스테이에는 40여 어린이들이 참가했다.

한문 교실은 전주 효정중학교 한문교사인 고현옥 선생님이 인성교육은 일상 정발중학교 도덕 교사 장미숙 선생님이 맡았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에는 인근의 합영성당 초등학생도 교리반 학생들도 함께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도 마련됐다.

생태체험으로는 최근 조성된 한

라산 돌멩이길, 불교문화재를 탐방하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광 스님은 "짧은 기간 송림사에 머물며 음식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재와 불교문화에 대한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우리지역부부니혼사 행복한 안도생협 설립 안도 신홍사

### 올바른 지역문화사업 창출이 목적

남도 끝자락 안도. 남도 끝자락 안도는 남해의 청정해역중 하나로 명사십리 등 휴양지와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이 설치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맑고 깨끗한 수산물로도 잘 알려진 안도에서 전통사찰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문화공동체 '행복한 안도 생협'이 설립돼 관심을 끌고 있다.

안도의 전통사찰인 신홍사는 지역민과 사찰이 연합해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올바른 지역문화사업 창출'이라는 목적으로 '행복한 안도 생협'을 설립했다. 특히 생협은 사찰이 지역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생협 이사장인 신홍사 주지 법일 스님이 말했다. 법일 스님은 "지역에서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다가, 지역적 한계로 인해 활동을 고민하다가 생협을 만들게 되었다"며 "문화교실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일 스님은 이서 부이사장과 함께 2009년 12월 창립한 단체를 지역 제1의 반석위에 올려놓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쿠기베이커리 교실' '건강교실' '도자기 만들기'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한 안도생협'은 매일 10시 업무를 시작한다. 매주 월요일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매장과 관리를 전담하는 김은주 총무팀장, 문화강좌를 운영하는 박지영 교육팀장, 안도의 특산물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김성현 유통팀장, 도자기의 제작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지영 도자기 팀장 등이 참여한다. 안도읍내에 마

련된 판매매장과 교육장은 매일 강좌와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행복한안도생협은 유통사업도 시작했다. 경제적 기반이 약한 생협의 항구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유통사업은 청정해역인 안도의 해산물과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 참복, 벌치, 김, 미역, 다시마, 매생이, 홍합, 굴 등 선별된 신선한 해산물을 소비자와 직접 유통하는 것이다.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의 어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해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유통을 통해 만들어진 자금은 고스란히 지역문화사업에 사용된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빈그릇운동·쓰레기제로운동 등 환경운동기금, 다문화사업 및 제3세계의 구호사업에도 지원된다. 이서 부이사장은 "보통 '생협' 하면 물건만 팔고 사는 곳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은 사회운동과 환경운동을 위한 한 방법으로 시작한 것으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찰의 문화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활동에는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의 상임대표로 3년째 지역 환경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법일 스님의 역할이 크다.

지역적 여건에 맞추어 사찰의 지역문화사업과 건강한 먹거리 유통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신홍사 생협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다. 하지만 도심사찰이 아닌 작은 시골마을의 사찰이 추진하는 이 사업에 불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061-555-3017. www.wandocoop.com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행복한 안도생협 이사장 법일 스님.

##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

### 아시아 청소년들 한국불교 체험

제27회 국제 잼버리대회에 종교관이 운영돼 아시아지역 청소년들과 종교를 통한 문화교류가 진행됐다. 잼버리대회에 운영된 불교관을 비롯해 각각 대원들은 각 종교관에서 기도와 예배를 보며 바쁜 프로그램에서도 평소의 신심을 다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회장 진정순)는 8월 4-9일까지 전남 순천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제27회 아시아-태평양 잼버리 결 국제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과 함께 종교 참여시설을 운영했다. 종교관 중 가장 인기를 끈 불교관은 사찰예절, 풍경만들기, 108배, 참선, 목탁치기, 실크스크린인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121명의 청소년이 불교장(스카우트의 기능장 중 하나)을 취득했다. 8일 일요일에는 일요법회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불교대법회에는 선암사 스님들의

영산재 시범에 이어 법요식이 진행되어 4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법문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을 터득해야한다.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7회 국제 잼버리대회가 8월 4-9일 전남순천에서 개최됐다. 8월 8일 일요일 대회장내 불교관에서 열린 일요법회에 참석한 청소년과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오른쪽)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손실되어가는 우리 문화재

### 군산 발산리 석등 탁본행위로 몸살

보물급 문화재인 전북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석등이 무분별한 탁본행위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발산리 5층 석탑과 함께 군산 지역을 대표하는 발산리 석등을 통일신라시대 작품이다.

발산리석등 기둥돌(중대석,간주석) 받침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모습이다. 사각의 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 표면에 구름 속을 오동치는 용이 새겨졌다. 현재 용 문양에는 무분별하게 탁본을 시도해 탑의 일부분이 먹물로 심하게 오염된 상태이다. 또 비교적 현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석조(石槽) 돌을 파서 물을 부어 쓰도록 만든 석기. 큰

절에서 잔치를 하고 나서 그릇 따위를 닦을 때 흔히 쓴다) 안에는 각종 오물과 잡석으로 오염되고 있다.

현재 발산리 석등은 발산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다. 석등을 지키는 관리자나 CCTV도 없다.

발산리 석등은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불림사지에 있던 석조물로 일본인 시마타카가 자신의 농장으로 이전해 온 것이다. 이전과 정에서 석등의 기초가 되는 대대석을 그대로 놓아두고 상부만 옮겨왔다. 현재 지대석은 전북대 박물관 앞마당에 전시돼 있어 한시바삐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사업장의 범구 금강 삼고저

###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 부처님 제1의 비방범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망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편을 한지붕 밑에서도 좋

###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운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하는것을 부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용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 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고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20% 할인)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시댁, 가든, 의료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인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범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범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범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범구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범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범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수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 용띠, 쥐띠, 원숭이띠, 드는 삼재시작 조심

###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목는삼재 2012년 나가는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 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맴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제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역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 역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범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 45,000원 (사찰 공금 가격 별도 상담) 문의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